

중장년층 대상 문화 프로그램 '풍성'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경자씨와 재봉틀Ⅲ'
전통문화관
'엑티브시니어 전통음식 특별강좌'
조선대미술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미술 산책'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Ⅲ'의 하나로 지난 1일 양림동에서 진행된 '봄나들이 떠나는 경자씨' 참여자들이 소년시절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내 이름은 ‘○○엄마’ 아닌 경자씨, 꿈을 찾아 여행 떠나요” “난 요리하는 ‘味男 아빠’ 을 추석엔 명절음식 만들어볼게요” “老? NO! ... 미술관에서 제2의 인생 즐기며 옛것 지켜야죠”

한평생 자녀 뒷바라지에 어느새 하얗게 머리가 센 우리네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광주지역에서 중장년 대상 문화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리며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22명의 경자씨들이 끼와 재능을 뽐내는 무대가 마련된다. '경자씨와 재봉틀Ⅲ-꿈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 16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졸업식을 갖는다. '경자씨와 재봉틀Ⅲ'은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등 본명은 멀리두고 살아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경자씨'는 엄마들을 의미하는 대명사다. 지난 2014년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경자씨들은 지난 5월부터 창작 댄스, 역

할극, 심리극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진행했다. 또 직접 기획한 통영 1박2일 여행과 아트퍼포먼스로 꿈을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식에서는 그동안 열 번의 만남을 통해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나의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커뮤니티 댄스',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심리극', 창작 연극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에는 양림동 추억 소풍, 통영 여행 사진·영상이 전시된다.
행복한 경자씨들을 만나고 싶은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문의 062-670-5766.
엄마들에 이어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통문화관이 7월7일부터 8월25일까지 진행하는 '제9기 엑티브시니어 전통음식 특별강좌'는 아빠들이 요리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은퇴했거나 은퇴

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 대상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강좌는 다가오는 추석(9월15일)을 맞아 송편, 쌀강정, 토란국, 나물, 삼색전, 더덕구이 등 11가지 명절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전통문화관 남도의레움식체험실에서 진행되며,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레움식장 양영숙 명인이 함께한다.
오는 22일까지 방문·전화 접수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 혹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cms)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강료 7만원, 재료비 별도. 문의 062-232-1502.
조선대미술관은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즐기자 하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미술 작품 감상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조

선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일상의 유희, 미술 산책'을 진행한다. 29일부터 8월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조선대 미술관, 김보현·실비아 울드미술관.
크게 '옛것 지킴이'(29~7월20일), '예술이꿈이'(7월27일~8월17일)로 구성된다. '옛것 지킴이'는 29일 아트테라피를 시작으로 7월6일 고무신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본다. 7월13일과 20일에는 탈을 만들어 몸짓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술이꿈이'는 아트테라피(7월27일), 피아노 소리로 그려보는 그림이야기(8월3일), 부채만들기(8월10일), 도자공예체험(8월17일)로 구성된다. 무료로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당 선착순(20명) 접수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희의 문화카데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하 양림동)에는 '팬권'이 산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팬권 할아버지가 산다. 주인공은 김동균(63)씨. 무릎이 불편해 뒤통뒤통 걷는 모습이 마치 팬권과 닮아 동네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김 할아버지 덕분에 이웃들은 '팬권마을'이라는 근사한 문패도 갖게 됐다.
팬권 마을은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뒤편에 위치해 있는 작은 뒷밭이다. 말이 뒷밭이지 온갖 잡초사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고물창고'다. 과거 화재로 폐허가 된 빈 집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동네 벽에 하나 둘씩 전시하게 된 게 시

망을 구입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등 근대 문화를 꽃피웠다. 유일순 선교사 사택, 오웬 기념각, 양림교회, 어머니 기념관을 비롯해 이장우 가족과 최승호 고택, 다형(시인 김현승) 카페, 한희원 미술관 등이 대표적인 명소다.
이런 배경으로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근대유적의 보고(寶庫) 양림동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해 30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 장미빛 청사진을 무색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양림동

양림동에서 생긴 일

작이었다. 뒷밭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게 속상했던 김씨가 고물들을 보기 좋게 늘어놓은 것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빨래 방망이, 너덜너덜해진 플라스틱 모기채, 이가 빠진 사발 ... 전시된 추억의 물건들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마치 70~80년대로 되돌아 간 것 처럼 반갑다.
뒤통뒤통해도 팬권마을의 명소는 팬권 시계점이다. 대형 벽걸이 시계에서부터 탁상시계, 원형시계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가 넘는 오래된 시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방문객들은 오래된 시계들을 보면서 잠시 지난날의 아련한 추억을 회상하는 색다른 즐거움에 빠진다. 그 덕분에 요즘 전국 각지에서 팬권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팬권마을이 입소문을 타게 된 건 근대기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양림동의 후광 효과 덕분이다. 100여 년 전 광주 최초 서양 근대 문물을 양림동에 들여온 선교사들은 양림산 자락의

에 자리한 광주기독교병원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병원 내 선교사 사택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주민자치회가 철거계획에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이 잠정중단을 발표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보여주기식 '양림동 프로젝트'의 허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간 씁쓸한 게 아니다. 사업의 근간인 양림동의 가치와 '주인의식'을 일깨우는 데 소홀한 대신 하드웨어와 일회성 이벤트에만 급급하다 보니 '거리낌없이' 선교사 사택을 밀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며칠 전 서울의 미술평론가 C씨는 선교사 사택 철거논란 기사를 가독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광주에서 이런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마치 문화광주의 '민낯'을 들킨 듯 얼굴이 화끈거리려 선택 답장을 하지 못했다. 하긴 어디 나만 그랬을까. 양림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난 며칠은 건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전남여고, 제27회 광주학생연극제 3관왕

전남여자고등학교가 제27회 광주학생연극제 3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제20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광주시 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전남여고는 작품 '우리읍내'로 최우수작품상, 연기대상(김아연), 최우수연기상(이지윤)을 거머쥐었다. 전남여고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청소년 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우수작품상에는 동신여자고등학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뽑혔다. 조세연 학생이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동

신여고는 2관왕에 올랐다.
전남고등학교는 '사람 향기'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연기상에는 김유정·최휘찬·변민곤·최지우·정수지·박기열·최은서·이환희·장수호·정효은 학생이 선정됐다.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조주영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은 정순기, 윤여송, 임흥석, 송정우씨가 맡았다.
윤여송(극단 예린 대표) 심사위원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많이 늘었다"며 "단지 희곡 선택에 있어서 너무 폭력적이고, 웅대, 죽음에 관한 작품을 선택한 점이 아쉬웠다"고 심사평을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현대합창 기행'

16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현대합창 기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원주시립합창단 정남규(사진) 상임지휘자가 함께 한다.
연주회는 '현대 모테트', 'Missa brevis', '한국가곡', 'Jazz합창' 4개 스테이지로 구성됐다.
레퍼토리는 종교 중심의 전통 미사곡과 달리 작곡가의 개성을 만날 수 있는 현대 미사곡 'Klavier mess', '운동주 시 서시',



김재명 시에 정남규 지휘자가 직접 멜로디를 부친 '그리움', '사운드 오브 뮤직 OST', 'It might as well be spring' 등 다양한 곡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415-5203~5.
/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18일부터 '썸머아트피크닉'

예술을 통해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줄 광주시립미술관 '썸머아트피크닉'이 18일부터 8월까지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미술관 옆 책방'에서는 만화책부터 그림책, 인문학도서까지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작가 아틀리에'에서는

'삶이 예술, 일상이 예술'을 주제로 작가들이 예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아트 살롱'에서는 공성술 만화가를 초청해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이와함께 잔디밭에 돛자리 피고 누워서 편히 감상할 수 있는 '아트피크닉 콘서트', '씨네마 아트'가 진행된다. 문의 062-366-18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